

겨울 초록 은행잎이 '기후 악당'에게 보내는 경고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교육학박사



얼마 전 내린 첫 눈으로 무등산 설경이 장관이다. 매년 첫 눈이 내릴 때쯤이면, 광주 길거리는 샛노란 은행잎이 화려한 색을 지은 낙엽으로 바뀌면서 설경과 어울린 풍광을 선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무등산과 광주 곳곳의 은행나무들은 11월 말이 되어서야 단풍색을 내기 시작했다. 과거 노란 은행잎이 장관을 이루던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초록색 나뭇잎이 무성해 계절을 혼동하게 한다.

작년에 여행했던 스위스는 기후위기로 멋진 경관들이 사라져 아쉬움을 남겼다. 폭염으로 녹아내린 만년설은 낙석, 산사태 위험을 불러와 등산로가 폐쇄된 곳들이 많았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융프라우는 1년 내 내 녹지 않는 만년설과 알레지 빙하가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크고 긴 것으로 유명하다. 수천년 동안 쌓인 빙하는 태양 빛을 반사함으로써 얼음이 녹지 않게 하는 보냉 효과를 줬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녹지가 되면서 탄소격리를 증가시키는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고 고산식물이 낮은 고도의 번식력 강한 식물들에 밀려나 생물다양성에 압박을 받는 등 부정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여름에도 냉방장치가 필요 없었던 스위스 도심 곳곳의 식당이나 카페의 에어컨 설치 비율이 점점 늘

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세계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고, 기후 협상을 막은 나라에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불릴만한 결과이다. 기후변화 성과지수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레이밋연구소,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함께 매년 각국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간하는 보고서다. 64위부터 67위는 모두 산유국이며 화석연료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은 사실상 기후대응 정도가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광주의 기후도 지구온난화로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다. 1940년 12도였던 평균 기온은 2022년 14.8도로 2.8도 상승하였고, 1991~2020년 연간 열대야 일수 16.1일, 폭염일수 15.6일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열대야가 27일이나 지속되고, 19일 동안 폭염을 겪었다. 평균 기온 1도가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다 수면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 같은 극단적 날씨 현상 발생, 생태계 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변화가 생긴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3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인 2030년 40%보다 더욱 강화된 지표이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도심 전역을 30분대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2호선과 촘촘한 연결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자전거 타기 좋고 보행이 편리한 푸른길 조성, 공공자전거 '타랑개' 재개, 보행 친화적 도로 환경 확대로 도심 곳곳에 '견고 싶은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광주전 자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 마지초등학교, 2024년 일곡중학교와 월봉중학교에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이다. 학교는 유휴공간인 옥상 등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은 발전소를 설치해 사용료를 내려 운영한다. 햇빛발전소는 연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은 시민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환경의 변화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상 생활에서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TV·휴대전화·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과 채식 식단 늘리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당장 실천해보자.

社說

신뢰·리더십 잃은 대통령 결자해지 해야

파행적 국정 국민 지지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아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라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윤 대통령의 뇌고의 선택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한반중 느닷없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불능 상태로 잃어버렸다. 헌법에 명시된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에도 알리지 않고 선포한 계엄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 헌법적 행태에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적이고 위험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불통, 형식과 절차를 내댈지 않았고 충격이다. 말을 듣지 않는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도 뼈아픈 국가적 재앙이다. 당장 세계 각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였고, 환율부터 국고채 금리, 가상자산 시장 등은 불확실성에 따른 후폭풍으로 4일까지 요동치고 있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지면서 자본시장으로는 초대형 악재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대다수 국민과 단체 등이 진영을 떠나 한복소리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쳤다. 야당은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신뢰를 잃고 리더십을 상실한 대통령이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 최선은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의 위상과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파행적 국정운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위기의 여수산단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매출 출고 공장가동 중단까지

석유화학 메카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위기 속에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위기로 치닫는 여수산단의 경쟁력을 키울 자구노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최근 여수산단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산업 동향 및 각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산단 업체들의 지방세 납부액은 2054억원으로 2022년 대비 37억원 늘었다. 국제 납부액은 3조 3691억원으로 전년(9조 4095억원)과 비교해 6조 404억원 감소했다. 석유화학 침체 여파로 여수산단의 2023년 매출액은 92조 1034억원으로 전년 대비(111조 5094억원) 19조 4060억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지난 2일 여수 국가산단 내 1~3공장 가운데 2공장 일부 시설의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 2공장은 차량용 냉각제 주원료인

에탄렌글리콜(EG)과 산화에틸렌유도체(EOA), 페트(PET), 아크릴유리 소재인 MMA 등 5개 생산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석유화학 원료인 '스티렌모노머'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최근 여수NCC 2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다.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남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은 전남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위기에 처한 여수산단의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남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부가친환경 소재산업 육성성과 수소·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장기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업종 다변화 등의 자구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정부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단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방패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제 발등을 찍고야 말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상조차 안 되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거의 비이성적인 자해 수준이다.

참으로 어설피고 무모했던 촛극은 겨우 2시간 37분 만에 종을 쳤다. 계엄이 선포된 뒤 곧바로 국회가 소집돼 계엄령을 해제한 것이다. 위험적 비상계엄에 여권 의원까지 합쳐 모두 190명이 만장일치로 해제안건에 동의한 것이다.

"민주주의·헌정질서 짓밟힌 새벽을 지켜본 우리의 인내 바다냐", "스스로 민주주의 적임을 만천하에 자백, 당장 물러나야", "정부 무능함 드러낸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 몰락하는 결과 재촉".

윤석열 대통령이 평온했던 서울의 밤을 깨고 지난 3일 심야시간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과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6시간 만에 항복한 이후, 언론·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상사태인 촛극을 벌인 것일까.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종북세력을 척결하



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지켜 봤던 국민들은 전혀 공감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가당치 않은 레토릭일 뿐이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정국 인식과 판단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 계엄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왔다. 다시, 탄핵 정국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의표명 뉴스도 나온다.

웃지 못할 심야 촛극 이전에도 정국은 요동쳤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300여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시국선언에 종교계도 가세했다.

개신교 1000인 선언에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1466인은 최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불변의 진리 군주민주(君舟民水)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에게는 뱀을 권리도 있지만, 뱀아버릴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않았을 터. 정치적 자해에 가까운 계엄 선포가 가져 올 후폭풍이 거셀 듯 하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 全南日報 | 시장·발행·편집인 | 이재욱 | 본실실장 | 이용환 | 편집국장 |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
| www.jnilbo.com m.jnilbo.com | 정치부 | (062)510-0340 |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 |
| 구독신청 | | (062)510-0471 | 광고문의 | | (062)512-0100 | |
| FAX | | (062)510-0436 | 서울지사 | | (02)725-8890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